

MEG, 가격강세 꺾이지 않는다!

미국 천연가스 강세에 수급타이트 ... 중국 Polyester 가동률 조정

MEG(Ethylene Glycol Monomer)는 4월 ACP(Asia Contractive Price)가 톤당 850달러로 동결된 가운데 5월에도 10달러 추가 인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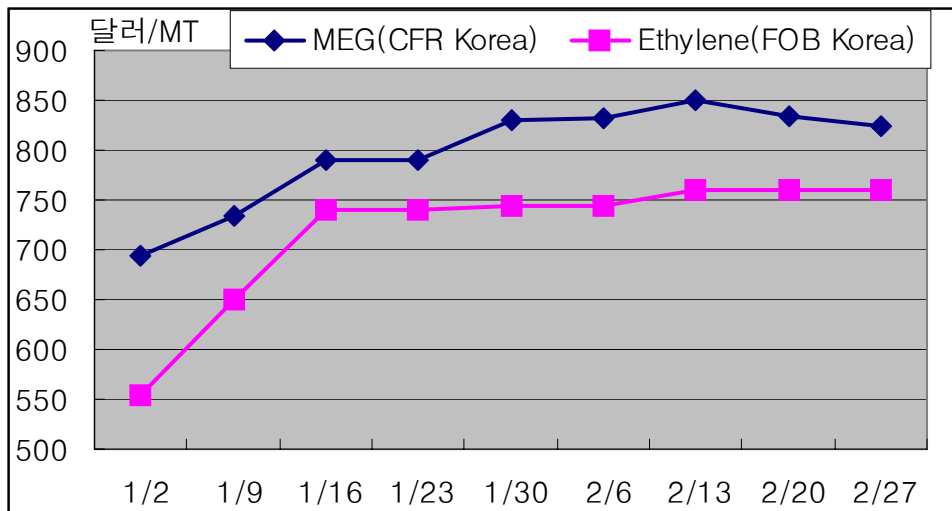
MEG 생산기업 관계자는 “미국의 천연가스 강세와 수급타이트로 MEG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업계에서는 2005년까지 MEG의 세계적 수급타이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인상은 사우디 40만톤 플랜트의 Shutdown과 중국의 신규 Polyester 공장 가동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의 Polyester 생산기업들은 MEG와 TPA(Terephthalic Acid) 생산기업들이 원재료 가격인상분을 계속적으로 전가시키면 공장가동률 조정도 가능하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ACP는 아시아 지역의 MEG 거래를 위해서 고시되는 가격으로 국내에서는 화학섬유용이 10달러 이상 빠져 거래되고 있으며, 내수용으로 분리되는 산업용은 톤당 3-5만원 정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MEG & Ethylene 가격추이



MEG 생산기업 관계자는 “MEG 가격강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800달러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MEG는 2003년부터 최고의 수익성을 자랑해 생산기업인 호남석유화학, 현대석유화학, 삼성Atofina가 톤당 평균 3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4년 에틸렌(Ethylene) 가격강세 이전에는 톤당 700달러대에 거래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중국은 4월 초 구매기업들이 재고가 많다는 이유를 내세워 CFR China 810-830달러에 Bid를 냈으나 둘째 주에 중국의 메이저 Polyester 생산기업들이 MEG 재고를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소문에 따라 가격이 다소 상승했다. <김동민 조사기자>

<화학저널 2004/04/22>